

# 中西部 新石器時代 石器에 대한 初步的 檢討 I

-석기조성을 중심으로-

林尙澤\*

## 차 례

- I. 머리말
- II. 석기의 분류
- III. 시기별 석기구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sup>1)</sup>

한반도 신석기시대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編年 위주로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任孝宰 1983a,b,c,d; 韓永熙 1978, 1983, 1994, 1996). 편년연구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편년위주의 연구경향은 토기, 특히 토기문양위주의 연구경향을 초래해 나머지 유물들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경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선사시대의 생계경제형태를 반영해주는 석기나 골각기 등 生産道具에 대해서는, 편년은 물론이고 그 組合狀에 대한 연구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서부지역의 석기상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고찰의 주된 목적은 중서부지역 석기의 조합양상을 정리하는 것이며 또한 개별 석기들의 형태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석기의 시기적 변화과정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석기에 대한 기초적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석기양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토기에 의한 편년연구와 조합되어 그 지역의 문화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주변지역과의 비교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향후

\*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 본고는 2000년 1월에 한국신석기연구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 중 전반부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석기구성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개별 석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